

종자산업 현재와 미래 조망한다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서 18일까지 '2024 국제종자박람회' ... 91개 기업·기관 참여 497품종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제시와 함께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개막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성주 김제시장, 유관기관·단체, 종자기업 관계자, 해외바이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관에서 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제8회째 열리며, 종자산업의 국내외 교류와 B2B 수출 상담회 등 국내외 종자 기업들과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국내 최고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91개 종자기업과 전후방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며, 품종전시포, 산업관, 비즈니스관, 유리온실 등 4만5,685㎡ 규모로 497개의 다양한 품종이 전시됐다.

또한, 참가한 종자기업들은 B2B 수출 상담회에도 참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80여억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김제시 백산면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 국제종자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품종 전시포에는 국내외의 종자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품종들을 노지와 비닐 온실에서 전시하고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B2B 수출 상담회를 진행

하며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학술 행사를 통해 최신 종자산업 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부대행사로의는 종자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관람객들은 작물 수확체험과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 종자 자급률 향상을 물론 수출 확대 등 종자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종자기업의 애로사항 개선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대회 성공 위한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200여명 참석 김관영 도지사, 전문성·친절함으로 현장서 활약 당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6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요내빈들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한비친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자원봉사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다짐 선서와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모던한복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리슬' 대표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유니폼 설명회 및 패션쇼, 성공개회 기원 자원봉사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분야별 자원봉사자 추가 교육과 대회 테러방지 교육을 추진하여, 더욱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썼다.

/이만호 기자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21~24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대회 성공 개최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식행사 △기업전시관 안내 △숙박시설, 역, 터미널 셔틀버스 안내 △보조주차장 및 내부순환 셔틀버스 안내 △안내부스 운영 지원 △다례봉사 등 총 11개 분야에 배치되어 운영 지원, 질서 유지, 시설 안내, 탑승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모두가 도를 대표하는 민낯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자 전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전문성과 친절함으로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의 '한마음'

전북자율방범대연합회 대원 6000여명, 결의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자율방범대연합회(회장 경세광, 회원 6,381명) 임원 50여명은 16일 익산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광장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북 자율방범대연합회는 경찰청에 남원을 학교 설립 위치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남원시가 제2 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남원시는 국유지를 활용해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설립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서남대 폐교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북 자율방범대연합회 남원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들의 힘을 모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활동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역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써주세요"

전북자치도의회, 적십자 전북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6일 의정실에서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7월 8~19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던 전북·대전·경기·충북·충남·경북 6개 시도의회 건의에 의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원결정으로 이루어졌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도내 전체에 총 583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호우피해를 입은 도민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추후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은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전북지사에서는 재난구호금을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해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고등평생교육 혁신의 길을 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LIFE2.0사업추진단이 주최한 '고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전략포럼'이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자리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전북지역 주요 대학 관계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 정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고등평생교육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특히, 지역 특화 평생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언과 성공 사례 공유가 이뤄지며, 전북이 고등평생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는 △고등평생교육체제의 글로벌 스탠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LIFE2.0사업추진단이 주최한 '고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전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지역특화 전략포럼' 성료 LIFE2.0·RISE 통합연계로 전북 교육 혁신 방향 제시

드 구축 방안 △지역특화 인력 양성의 핵심 축으로서의 LIFE2.0 사업과 RISE 연계 방향 △전북 RISE 사업에서 LIFE2.0 참여 대학의 역할과 전략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평생교육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포럼에서는 LIFE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얻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RISE체제의 통합을 대학과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RISE체제 진행 과정에서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이 고등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등평생교육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들이 평생학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제9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 21~22일 개최

전북 최대 창업·투자 페스티벌... 창업유관기관·민간투자사 참여 우수 스타트업 60개사 투자 IR·제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북 최대의 창업·투자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가운데,

'Start-up! Scale-up! Jump-up!'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개 협력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20여 개의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예탁결제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지역 내 유수의 창업 관련 기관들이

포함된다.

첫날인 21일에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4년 유망스타트업 스케일 100 선정기업 증정식 △우수 스타트업 61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북벤처 혁신 투자조합 2호 출자 확약식 △상담부스(법률, 노무, 회계재무, 투자 등)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과 로컬 커뮤니티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창업대전은 창업 불 조성과 창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전북 전역에서 창업주간(10월 21일~11월 1일) 동안 다양한 행사 개최를 예정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해 체험과 관람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투자 IR을 통해 전북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농업용지에 오염물질 무단 살포 관련조사 진행

새만금 농업용지 오염물질 시료채취 후 성분 분석 중... 살포자 등 관련자 조사 후 적법 조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에 퇴비 등이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 곳곳에서 살포되는 검은색 오염물질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제시는 농지에 살포된 검은색 시료

를 채취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해당농지에 오염 의심 물질을 살포한 업체와 축사 소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조사 중이며 만약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

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농지 반입경로, 살포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조사료 재배농지에 도 퇴·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농지 임대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주시시키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환경보호는 내부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문안위, 전국체전 출전 전북선수단 격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6일 제105회 전국체전이 한창 진행중인 경상남도 내 레슬링 경기장 있는 함안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하고,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출전 중인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 "전북을 대표하여 전국체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입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경기와 앞으로의 대회



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칠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상임위원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제299회 임시회 중 14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에 나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정선건강복지센터 등 8개

소를 방문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10개소를 방문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건설현장 부실시공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